

2024년  
고3  
6월 모평

## 2024년 시행 고3 6월 모평 국어 문학 | 아버지의 땅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께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느낌.)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인해 어두운 아이가 되어 버린 '나')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아버지)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 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아버지의 환영)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 그로 인한 죄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 / 가족의 비극을 통해 민족적 비극을 보여 줌.) ]( [ : 1인칭 서술자의 내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남.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중략 부분의 줄거리 ]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들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하게 된 계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행한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인류애, 휴머니즘을 드러내는 인물)은 몸통뼈에 묶인 줄(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동족상잔의 비극과 아픔의 해소 가능성을 드러냄. '몸통뼈에 묶인 줄'의 의미와 '매듭이 풀리는 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찢겨떨걱 췌소리를 낼 듯한 철사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전쟁의 냉혹함과 공포를 환기시킴. <보기>로 현대시 작품을 제시한 후,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으라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유해를 수습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림.)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혈벗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의인법. 고요한 분위기)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과거의 기억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낌.)

[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아버지가 집을 버리고 사라져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모습)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쓰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어머니에 대한 기억에 아버지의 환영이 중첩되어 나타남.)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닫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어머니 / 아버지의 환영을 떠올림.)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아버지는 '나'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남.)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좌익 활동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난 아버지)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아버지의 외양 묘사 / '나'의 상상 속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의 고생스러웠던 삶을 짐작할 수 있음.)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아버지와 어머니)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오랜 세월 어머니가 외로운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 줌.) [( ]: 유골을 수습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과거를 떠올리고 아버지의 환영을 봄. **구체적인 과거 회상 장면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과거 회상에서 현재로 돌아옴.)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흠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복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오 일병은 노인의 행위를 돕고 있음.) [( ]: 봉분, 뗏장, 술, 복어는 고인에 대한 예의, 정성, 인류애, 휴머니즘을 의미함. **봉분, 뗏장, 술, 복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암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유해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임.)이니까, 자 한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킬킬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아버지도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어머니) [( ]: 인용 부호 없이 어머니의 말을 제시함.) 어머니가 말했다. [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 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① '나'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며 눈물을 흘림. ② 아버지의 환영(사내)이 총에 맞아 눈물을 흘림.) [( ]: 아버지에 대한 환영. 유해 수습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회상하고 아버지 역시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이해와 연민으로 전환됨.)

[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말에 무성한 썩부쟁이와 엉경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 영탄적 어조,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전쟁에서 희생되었을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드러냄. **아버지에 대한 '나'의 변화된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시 작품과 비교하는 수능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나'가 유해 수습을 계기로 아버지에 대해 연민의 정서를 느끼게 되었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 「아버지의 땅」

### 핵심 정리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분단 소설
- 성격: 회상적, 사실적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는 전방의 어느 야영지
- 주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이해와 연민을 통한 치유
- 특징
  - 현재의 사건에 과거의 기억이 중첩되면서 사건이 전개됨.
  - 대조적인 인물의 태도를 통해 작가 의식을 드러냄.
  - 상징적 소재를 통하여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를 통해 민족적 상처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 줌.

### 이해와 감상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은 그의 첫 소설집의 제명(題名)이 된 작품으로서, 임철우 소설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품이다. 흔히 그는 우리 시대의 현실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리얼리즘적 수법으로 파헤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이 <아버지의 땅>에 드러난 작가 의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소설적 관심은 체제와 이데올로기적 폭력,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동요되는 개인의 모습들에 있다. 그래서 그는 분단 체제의 현실과 광주 항쟁 등 일련의 시국 사건들에 직접, 간접으로 관계된 인물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들이 현실의 다양한 폭력 앞에서 어떻게 파멸되어 가는지를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

또, 그의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폭력들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 개인과 사회, 실존적 고뇌와 공동체적 실천 사이의 문제에 대해 언제나 통찰하고 탐구하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우리 시대의 폭력적 현실과 과거의 폭력, 개인의 파멸과 사회의 부도덕함 사이의 관계를 진지하게 다룸으로써 분단 체제와 광주 항쟁 같은 비극적 현실의 원죄(原罪)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체 줄거리

‘나’는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군인으로, 공산주의자였던 아버지로 인해 피해 의식을 갖고 살아온 인물이다. ‘나’와 오 일병은 야전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는 과정에서 이름 모를 유골을 발굴하고, 유골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마을을 방문한다. 그 마을에서 ‘나’와 오 일병을 따라온 노인은 유골이 묻힌 곳과 그 인근이 6·25 전쟁의 막바지에 술한 시신이 묻혔던 곳임을 알려 준다. 노인은 군인들과 함께 유골을 수습하고 술과 안주로 간단한 제사를 지낸다. ‘나’는 노인을 집으로 모셔다드리게 되고 노인으로부터 전쟁의 와중에 실종된 그의 형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첫눈을 맞으면서,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던 어머니를 회상하며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고, 얼어붙은 땅 밑에 웅크리고 누운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의 고통과 죽음에 연민을 느낀다.

서지정보

저자 정준희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7258-8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4.06.10

가격 500원

